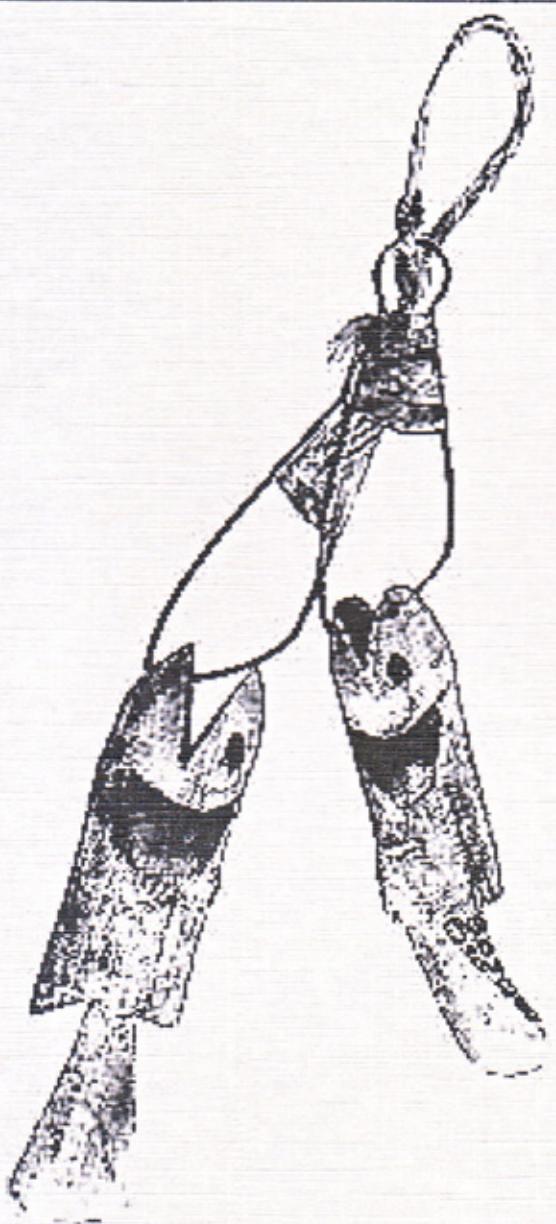


제58회 숭대극회 가을정기공연



물고기의 축제

魚の祭

작가: 유미리 연출: 조태희 기획: 윤장한

일시: 1998년 11월 26~27일 6시, 28일 1시 5시

장소: 숭실대학교 대학극장

주최: 숭대극회

모시는글▶



이 순간 무대위에 있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Imagination.....난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순간 함께 숨쉬고 있는 모든 관객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모든 극회가족들께 감사드립니다.

극회장 이경희(컴퓨터96)

연출면▶



난 여기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미처 느끼지 못했던 아름답고 소중하며 진실한 또다른 사랑의 눈을 뜨고 있다.

연 출 조태희(섬유92)

작품분석▶

I. "가족이란 무엇일까" 왜 우린 가족이란 테두리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 작품을 처음 접하고 난 후 난 전에 없던 기묘한 혼란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되었고 "가족"이라는 것의 실체를 찾아보고 싶었다. 또한 이렇게 잡음많은 가족에게서 사람들이 무엇을 느낄 것인가하는 궁금함도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했을 수도 있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낯설지않은 모습들일 것이다. 12년동안 별거생활을 한 마사코는 사고로 공사장에서 떨어진 막내아들 휴우오의 죽음으로 연락을 두절하고 지내던 딸 유리에게 전화를 해서 집으로 부른다. 유리는 다른 가족들을 부르려하나 마사코는 세월의 벽 때문에 만류하지만 유리는 가족들을 전부 집에 불러들인다. 그리고 가족들은 심하게 엉켜 있는 실타래 때문에 대립과 갈등을 반복한다. 그러나 휴우오의 일기속에 가족에 대한 뒤틀린 애정을 느끼며 가족들의 실타래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풀어져가고 후에 가족들이 오인 지금 서로가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게 된다.

II. 이 작품에서 가장 큰 모티브는 휴우오의 죽음으로 인한 장례식이다. 이 죽은 사람은 극 전체 분위기를 시작에서 끝까지 주도한다. 나타나진 않지만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가족들을 바라보는 느낌이다. 그 다음 모티브는 휴우오의 일기이다. 이 일기 속에서 휴우오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 숨쉬며 12년간의 시간동안 가족의 생활을 말한다. 그리고 서로가 미워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모두 같이 모여있다는 것이 실타래(옹어리 가족간의 반목, 미움, 질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는 듯하다. 그리고 휴우오의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담긴 이 일기는 휴우오의 목소리를 극대화 시킨다.

작가 유미리에 대해서▶

1968년 요코하마시에서 한국인 부모의 2남 2녀중 장녀로 출생. 부모의 별거후 분가해서 생활하다가 고교를 중퇴했다. 1988년 『청춘5월당』을 결성, 극작가겸 연출가로 활동하다가 1993년 최연소 나이에 <물고기의 축제>로 기시다 구니오 희곡상을 받았다. 소설집<풀하우스>를 발표하고 <가족시네마>로 아쿠타카와상을 수상했다. 일본 20대 순수 문학의 기수로 손꼽히며 가족 및 삶과 죽음을 테마로 점차 핵가족화 되어 가는 현대 사회의 부권상실과 가족의 해체를 예리하게 파헤치고 있다.

C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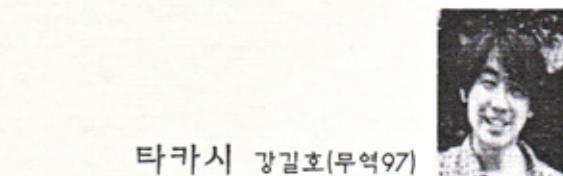
마사코 신하영(건축95)



유 리 권내리(불문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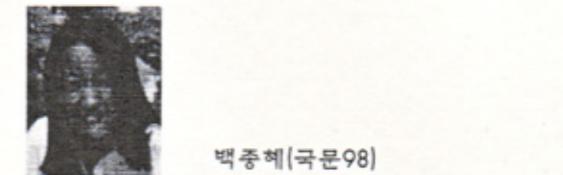
이경희(컴퓨터96)



타카시 강길호(무역97)



후우키 강대인(산공98)



백종혜(국문98)

루리/가오루고/하루고



사또/과일가게주인 윤장한(경통98)



카와지마/토시카즈 최연경(전전통98)

기획면▶



기획 윤장한(경통98)

힘든 작업이 끝나고
힘들었다고 생각하면
힘없이 주저 앉았다면
힘든 고난에 또 다시 부딪히면
존재한다면.....실수는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하지 않았습니다. 극회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STAFF▶

무대감독 한석윤(기계91)
총 보 류성환(건축93)
총 장 이정미(섬유95)
진 행 유동룡(섬유97)

무대장치 김형근(국문92)
일러스트 박정국(법학93)
분 장 류민주(국문94)
진 행 유선영(영문97)

무대미술 양명호(법학93)
진 행 박시현(법학94)
의 상 양 진(일본96)
진 행 김영걸(정전98)



음향 이정원(국문93)



조명 박지희(정외95)

모시는 글 ▶



이 순간 무대위에 있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Imagination.....난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순간 함께 숨쉬고 있는 모든 관객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모든 극회가족들께 감사드립니다.

극회장 이경희(컴퓨터96)

연출변 ▶



난 여기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미처 느끼지 못했던 아름답고 소중하며 진실한 또다른 사랑의 눈을 뜨고 있다.

연 출 조태희(섬유92)

작품분석 ▶

I. "가족이란 무엇일까" 왜 우린 가족이란 테두리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 작품을 처음 접하고 난 후 난 전에 없던 기묘한 혼란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되었고 "가족"이라는 것의 실체를 찾아보고 싶었다. 또한 이렇게 잡음많은 가족에게서 사람들이 무엇을 느낄 것인가하는 궁금함도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했을 수도 있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낯설지않은 모습들일 것이다. 12년동안 별거생활을 한 마사코는 사고로 공사장에서 떨어진 막내아들 휴우오의 죽음으로 연락을 두절하고 지내던 딸 유리에게 전화를 해서 집으로 부른다. 유리는 다른 가족들을 부르려하나 마사코는 세월의 벽 때문에 만류하지만 유리는 가족들을 전부 집에 불러들인다. 그리고 가족들은 심하게 엉켜 있는 실타래 때문에 대립과 갈등을 반복한다. 그러나 휴우오의 일기속에 가족에 대한 뒤틀린 애정을 느끼며 가족들의 실타래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풀어져가고 후에 가족들이 오인 지금 서로가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게 된다.

II. 이 작품에서 가장 큰 모티브는 휴우오의 죽음으로 인한 장례식이다. 이 죽은 사람은 극 전체 분위기를 시작에서 끝까지 주도한다. 나타나진 않지만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가족들을 바라보는 느낌이다. 그 다음 모티브는 휴우오의 일기이다. 이 일기 속에서 휴우오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 숨쉬며 12년간의 시간동안 가족의 생활을 말한다. 그리고 서로가 미워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모두 같이 모여있다는 것이 실타래(옹어리 가족간의 반목, 미움, 질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는 듯하다. 그리고 휴우오의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담긴 이 일기는 휴우오의 목소리를 극대화 시킨다.

작가 유미리에 대해서 ▶

1968년 효코하마시에서 한국인 부모의 2남 2녀중 장녀로 출생. 부모의 별거후 분가해서 생활하다가 고교를 중퇴했다. 1988년 (청춘5월당)을 결성, 극작가겸 연출가로 활동하다가 1993년 최연소 나이에 <물고기의 축제>로 기시다 구니오 희곡상을 받았다. 소설집<풀하우스>를 발표하고 <가족시네마>로 아쿠타카와상을 수상했다. 일본 20대 순수 문학의 기수로 손꼽히며 가족 및 삶과 죽음을 테마로 점차 책가족화 되어 가는 현대 사회의 부권상실과 가족의 해체를 예리하게 파헤치고 있다.